▶▶ 매일 INDEX

6면
국민연금-정읍시, 글로벌 인재양성 '맞손'

전주매일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음 5월 7일) 제28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기술력에 잠재력까지… 올해 전북의 '성장축'

돋움·도약·선도기업 47곳

도, 중기 성장사다리 육성 추진 위해 선정 상위기업 진입 육성

AZ 백신 2차 접종받는 송 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15일 전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 완료하고 있다.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으로 지역 파급효과가 높은 기업 47개 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은 지난 2010년도에 시작한 전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기반으로 발전시켜, 현재는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구성된 총 5단계의 기업육성 사업이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 집중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3월 8일부터 공모를 진행해 단계별 기업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돋움기업' 20개사, '도약기업' 15개사, 선도기업' 12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돋움기업으로 선정된 20개사는 ▲주식회사 랜드로드(대표 이주환), ▲(주)씨엔와이더스(대표 조대형), ▲유한회사 씨엠에프엔비(대표 이창경), ▲주식회사 에스엠전자(대표 정준호), ▲에이블㈜(대표 권오성), ▲유저인사이트(대표 강윤구), ▲주식회사 이노컨(대표 박찬), ▲(주)일루베이션(대표 원형필), ▲(주)제이온(대표 이현기), ▲(주)지에이티(대표 권영석), ▲(주)플라스바이오(대표 박성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대표 최인정), ▲(주)위스(대표 채승석), ▲지오이에스(대표 강청,김회덕), ▲(주)로봇팜(대표 강희용), ▲(주)한호기술(대표 김경근), ▲(주)그린파이프(대표 신미선), ▲(주)뉴트롬(대표 홍천기), ▲태평주가(대표 이영춘), ▲농업회사법인 데이웰(주)(대표 이득주)이다.

또,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15개사는 ▲(주)그룬(대표 이인호), ▲(주)나인이즈(대표 조용로), ▲주식회사 나우리(대표 김희영), ▲(주)마르페(대표 김택연), ▲(주)지에스엠(대표 조철용), ▲(유)도원산업기계(대표 정일), ▲유니크바이오텍㈜(대표 허용갑), ▲주식회사 이공기전(대표 국명호), ▲(주)송백이엔에스(대표 김범수), ▲주식회사 라라스팜(대표 배삼례), ▲한삼코리(주)(대표 조민수), ▲(주)가자(대표 전용희), ▲(주)이지컴퍼지트(대표 정연중), ▲(주)에스엠엔테크(대표 이종수), ▲(주)삼영메탈(대표 박승현) 이다.

이와 함께,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2개사는 ▲(주)지앤지엔터프라이즈(대표 여상룡), ▲디와이 이노베이트(주)(대표 이승창), ▲도가테크(대표 백선영), ▲(주)코빅스(대표 김종회), ▲(주)유니캠프(대표 오완곤), ▲(주)피엘티(대표 최규영), ▲(유)금란산업개발(대표 은윤기), ▲(주)코아스(대표 이도훈), ▲지음소프트(대표 남정훈), ▲(주)골드밴(대표 김수덕), ▲(주)디딤돌(대표 한정권), ▲(주)함소아제약(대표 김태희) 이다.

선정기업은 지정기간 동안 전담기관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파급효과 높은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

전북도는 돋움·도약·선도기업으로 선정된 47개 사에 대해 지정기간 집중 지원·관리를 통해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상위사업(스타기업·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지원으로 도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체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이에, 지난 4월과 5월에 선정된 성장사다리 지원체계의 상위단계인 스타기업 총 15개사 중 5개사와, 글로벌강소기업 총 6개사 전체가 선도 및 스타기업의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전북도의 중소기업 지원 육성 프그램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제조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역 산업경제의 성장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국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북도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TP 양균의 원장은 "도약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선도기업에서 중기부의 스타·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보듯이 매년 상위단계로 선정되는 기업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공고해지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연구소인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역량 지원사업의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전경(사진 왼쪽)과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내부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오른쪽)이다.

국가 핵심연구센터 선정 '쾌거'

전북대 보유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등 2곳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연구소인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역량 지원사업의 '핵심연구지원센터'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소장 어성국)는 교육부가 올해 '국가현안 대응형' 지정공모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가 감염병 연구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핵심연구센터 지정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정부와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등 70억여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국내 유일하게 설치돼 있는 중대동물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등을 개방, 시설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가 재난형 전염병원체 연구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 대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산학연관 공동활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난도 실험기법 및 기술을 개발해 생물안전 3등급 병원체 연구 수행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외 유입 국가 재난형 전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대학의 중립적 가치 실현을 통해 다부처 연구사업과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수행 활성화로 국내 연구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고, 감염병 연구 활성화와 전문 연구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계 5번째, 국내 최초로 설립된 전북대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센터장 문세연)는 전국에서 4곳만이 선정된 '성장지원형'에 뽑혔다. 수도권 이외 대학 중에는 유일하다.

이 연구센터는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가장비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와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완주군 봉동읍 일대 만여 평 부지에 구축됐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으로 세계 최초 초고온세라믹 코팅 기술개발, 국내 최초 질화붕소 나노튜브 대량생산 기술 개발, 국내 최고 수준의 민간 초고온 물성평가 기술 확보 등의 초고온 내열소재부품 기술 및 고기능성 나노소재합성 기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핵심연구지원센터' 선정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와 함께 국내 최초 플라즈마/방사선 기반 양자시스템공학과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전북대의 플라즈마 분야 특성화 역량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선정을 통해 센터는 2027년까지 26억여원의 지원을 받아 고유 연구역량 향상 뿐 아니라 산업체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특성화 분야 거점핵심연구센터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도, 18일까지 예방접종센터·공사현장 안전점검

전북도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공동주택·도로·하천 공사현장, 예방접종센터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비극적인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취지다. 이에, 도는 예방접종센터,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재건축)·도로·하천 공사 현장 등 도내 71개소를 면밀히 점검한다.

도는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린다.

특히, 건축, 토목, 가스,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예방접종센터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접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로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